

<인더스 문명>

1. 인더스 문명

1) **인더스 문명**: 기원전 3500년경 인더스 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경문화는 기원전 2600년경에 도시문명으로 발전(인더스강 상류 펀자브지방에 드라비다 인이 건설)

2) 대표 유적

모헨조다로, 하라피는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

흙벽돌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포장된 도로와 석관을 이용한 배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도로 양편에는 거대한 공중목욕탕(사제들이 의식을 거행하던 장소), 집회소, 곡물 창고, 벽돌 주택, 시장 등이 정연하게 들어섬

왕궁이나 호화로운 묘지는 보이지 x

이들 유적지에는 상형문자가 새겨진 인장이 대량으로 발굴

청동기와 채도, 문자를 사용

3) 무역의 발달

인더스 문명은 농업 이외에도 무역으로 번영

모헨조다로와 하라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나 서로 물길로 연결

페르시아(아라비아)만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교역망이 이어짐(해상무역)

이러한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은 현재 남인도에 거주하는 드라비다 인으로 추정

4) **파괴**: 홍수, 수로의 변경 등으로 쇠퇴해 가던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1500년경 인도에 침입한 아리아 인들에 의해 파괴됨

2. 인더스 강에서 갠지스 강으로

1) 아리아 인: 오늘날 인도인의 다수

① 중앙아시아의 초원 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 인이 기원전 1500년 경 인더스 강 유역으로 남하

② 아리아인은 펀자브 지방을 정복한 후 기원전 1000년경에는 갠지스 강 유역까지 진출

③ 아리아 인은 홍수가 잦고 습지가 많은 갠지스 강 유역을 철기를 이용하여 개간: 철제 농기구 사용과 벼의 재배로 농업 생산이 증가, 도시가 발전, 국가가 형성 -> 이 과정에서 인도 문화의 특색을 이루는 제도와 종교가 형성

가부장 중심의 사회를 이루면서 소를 신성시하는 전통을 유지

카스트제를 만들: 정복한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

2) 카스트제

브라만: 제사 의식 거행
크샤트리아: 정치, 군사 담당
바이샤: 농업, 수공업, 상업
(선주민)수드라: 각종 천한 일 종사
불가촉천민: 도살, 이발, 청소, 세탁

① 아리아 인은 정복한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를 확립

② 카스트제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직업이 엄격히 구분되어 세습

③ 다른 카스트 간에는 결혼, 음식을 함께 먹는 일조차 금지됨

④ 카스트제는 브라만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더욱 정교화됨

3) 브라만교

- ① 아리아인은 태양, 물,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신격화한 브라만교를 성립시킴
- ② 각 카스트의 지위, 계급의 권리,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③ 핵심교리: 업보 윤회설-> 업보로 말미암아 윤회가 생김
- ④ 브라만: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그들의 특권적인 지위 확보에 힘쓰면서 브라만교는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감

4) 베다 =지식

자신들의 신앙 대상을 노래한 베다를 남김
아리안인의 경전을 의미

<마우리아 왕조>(B.C 4C~): 상좌부 불교

1. 우파니샤드철학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우주와의 일치를 주장하는 우파니샤드철학이 등장
우주의 본체(브라만)와 인간의 본체(아트만)가 동일하다고 보고, 신이 아닌 인간에 주목
인간은 수행을 통해 윤회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
이를 바탕으로 불교와 자이나교가 등장

2. 불교, 자이나 교

- 1) 배경:기원전 7세기 경 갠지스 강 유역에는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발달
-> 이에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이 성장하면서 -> 기원전 6세기경 불교와 자이나교가 출현, 이들은 형식화된 브라만교의 제사의식에 반대하고 브라만 중심의 사회를 비판
- 2) 확산: 브라만 계급 중심의 사회와 종교를 비판하면서 복인도를 중심으로 확산/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는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수많은 소왕국들로 분열
- 3) 불교, 자이나교

불교	자이나교
-고타마 싯타르타 -기원전 6세기 경 창시 -만민 평등과 인생무상을 강조 -8정도의 실천(윤리적 실천)을 통해 생로병사와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	-바르다마나(마하비라) -기원전 6세기 경 창시 -철저한 불살생을 강조 -금욕과 고행, 엄격한 계율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함-> 특히 상인이지지: 엄격한 계율을 중시하는 자이나교도들은 신용이 확시량여 금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음

4) 불교와 자이나교를 환영한 상인들

- ① 두 종교는 브라만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지나친 권위주의와 엄격한 신분차별에 반대하여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세력의 환영을 받음
- ② 기원전 6세기 무렵 인도에서는 상업, 교역이 발달, 도시 성장-> 도시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조합결성, 세력확대-> 상인들의 경제적 능력이 상승하였어도 사회적 차별은 여전->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제도를 부정한 불교와 자이나교가 등장하자 바이샤계급, 특히 경제력이 있는 상인들이 크게 환영

③ 두 종교에서 주장하는 비폭력주의는 상인들에게 끊임없이 지속된 전쟁을 멈추고 상업과 교역을 진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함

④ 브라만교의 경전 = 다르마수트라: 고리대금업을 비난, 고리대금업자는 브라만에게 처벌 받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금업을 하던 상인들은 자이나교와 불교가 탄생하자 지지를 보내고 경제적으로도 후우js

⑤ 왕과 전사들: 정복전쟁을 통해 세력을 키워가던 왕과 전사들은 브라만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상인들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 -> 왕들은 상인 세력의 대표에게 관리적 성격을 부여하여 이들을 국가권력 내부로 끌어들이려 함 -> 왕권과 상인세력의 유대가 강화, 상인세력의 성장과 함께 이들의 지지를 받는 불교와 자이나교도 더욱 널리 퍼짐

3. 마우리아 왕조 성립

: 북인도의 아리아 인 사회는 점차 확대되어 갔지만,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소국으로 분열 -> 기원전 4세기 말 혼란에 빠진 사회를 수습하면서 세력을 키운 마가다 왕국의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가 알렉산드로스의 인도침입에 자극을 받아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고 최초로 북인도를 통일

4. 아소카왕(3대, 기원전 3세기경)

강력하게 저항하던 칼링가 왕국을 정복하고, 인도의 남부를 제외한 대륙 전역을 통일하면서 전성기를 맞음

중앙집권적인 통일 조직: 전국에 감찰관을 파견하는 등 중앙집권적인 통일 조직을 정비

도로: 지역간 교역을 위해 도로를 건설

불교보호: 제국의 통합에 힘써 불경을 정리하고 스투파(탑)을 세우는 등 불교보호와 포교에 힘씀

다르마: 불교를 국가 통치의 원리로 채용하여 다르마에 의한 통치로 비폭력과 통일의 이상을 실현

상좌부 불교: 이때 성립한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로 실론, 타이 등 동남아시아에 전파

아소카 왕 사후: 마우리아 왕조는 안으로 수많은 왕국들이 생겨나 분열, 밖으로는 서북 인도에 이민족의 침입이 시작되어 급속히 쇠퇴

<불교>

1. 상좌부불교, 대승불교, 티베트 불교

상좌부 불교	대승 불교
- 출가 수행자(승려) 중심 - 석가모니=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른 인간 - 부처의 언행에 대한 주석을 중시 - 엄격한 수행과 계율 준수를 통한 개인의 해탈을 추구	- 출가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신자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뿌리 내림 - 석가모니=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 불상을 만듦 - 이타주의에 입장에서 계율에 얽매인 기성 교단을 비판 - 중생구제를 목표

티베트 불교

신비적인 의례에 중점을 둔 종파가 티베트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

최고지도자 = 달라이 라마 = 부처의 환생으로서 죽지 않고 거듭 태어남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데 승려(라마)의 역할을 중시

2. 불교의 전파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 인도는 교역으로 큰 번영: 무역과 연계되면서 불교는 더욱 널리 확산/ 세계 각 지역에 전파된 불교는 다양한 민족 문화를 흡수하였으며 각 지역 문화와 접목되어 다양하게 변이

태국:

국민의 대다수가 상좌부 불교 신자/

매일 아침 승려의 탁발로 하루 생활이 시작

소년들은 통과의례로 일정기간 승려 생활

중국

불교가 전통사상인 유교, 도교와 충돌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유교, 도교와 융합되면서 중국화

티베트:

불교가 티베트의 토착 종교와 혼합되어 발전

7세기에 건설된 포탈라 궁은 티베트 불교의 중심지

<안드라왕조>

중계무역으로 번성: 로마, 동남아시아와 해상무역으로 번영,

교역활동으로 불교와 브라만교 등이 남인도로 확산

<쿠산 왕조>(B.C 1C~): 대승 불교

1세기 중엽 서북 인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이란계의 쿠산왕조가 들어섬

1. 카니슈카왕(2세기 중엽)

1) 전성기: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정복을 단행하여 북인도와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여 쿠산왕조의 전성기를 열음/ 후한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쿠산 왕조 가운데 가장 번성한 시기를 이룩

2) **중계무역**: 인도, 이란(페르시아), 중국 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독점하면서 중계무역으로 번영

3) **대승불교**:

- ① 카니슈카 왕은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문과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
- ② 특히 불교를 보호하고 불경을 모으는 일을 지원하고 포교에 힘씀: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불경이 결집(4차)되면서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가 성립, 발전

4) **간다라미술**: 이전에는 부처의 모습을 조각하는 것을 불경스럽다고 여겨 부처를 표현할 때 수레바퀴, 연꽃, 보리수 등으로 대신

- 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불상을 제작하는 간다라 미술도 발달: 쿠산왕조의 중심지였던 서북인도의 간다라지방에서는 인도문화와 + 헬레니즘문화(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래 헬레니즘 미술이 유행)가 융합된 간다라 양식이 탄생: 1세기 경부터 부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시작
- ② 대승불교에서 부처를 예배대상으로 삼아 불상을 만들면서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음
- ③ 그리스 신상을 연상케 하는 높은 콧날, 움푹 들어간 눈, 무늬 없는 둥근 광배의 특징
-> 대승불교, 간다라 미술은 비단길을 따라 중앙아시아와 중국(룽먼)을 거쳐 한국과 일본(경주 석굴암)에 전파

2. 로마와 교역

로마는 쿠산왕조를 통해 중국과 교역하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로마의 많은 금이 쿠산왕조로 유입됨

<동서 문화 교류의 시작>

1. 동서교역 시작

각 지역의 통일 제국들은 발전 과정에서 교역로를 열어 상호 교류

(1) **대표적인 동서 교역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초원길, 비단길, 배를 이용한 바닷길

1) **초원길**

유목민의 이동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동서 교역로로 가장 먼저 이용됨

2) **비단길**

동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유럽의 4대문화권을 연결
실크로드 개척 이전까지 가장 중요한 교역로로 이용됨

3) **바닷길**

인도인들이 먼저 이용

(2)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문화도 교류**

제국의 등장으로 지역신을 뛰어넘는 보편적 신앙이 성립 -> 이에 중앙집권적인 통일 제국은 보편적인 신앙을 강력히 후원하고 확산시킴 -> 교역로를 따라 퍼진 유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그리스도교 등의 사상과 종교는 서로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토대가 됨

<굽타왕조> (4세기 초)

1. 굽타왕조의 번영

1) 건국

쿠산왕조가 멸망한 후 북인도는 분열상태였으나, 4세기 초 찬드라굽타1세가 굽타왕조를 세우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 찬드라굽타 1세는 북인도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 그 후 지속적인 영토확장을 통해 찬드라굽타2세때는 북인도와 중부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대제국으로 발전

2) 번영

굽타왕조는 농지의 확대, 광범위한 교역으로 번영을 누림: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주화가 사용됨

굽타시대 왕들: 경제적 번영을 토대로 학문, 예술 적극적으로 지원 -> 문학, 과학, 미술, 종교 등 다방면 크게 발전

3) 에프탈의 침입

1) 5세기 경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에프탈이 북인도에 침입하여 인더스 강 전역을 점령

2) 에프탈의 이동으로 각 지역을 연결하던 **교통로가 단절되어 도시들이 쇠퇴**

3) 에프탈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각지의 **토착세력이 독립 -> 굽타왕조도 쇠퇴**

4) **인도고전문화의 발달**: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민족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융합이 이루어져 지방마다 특색있는 문화가 발달 -> 이로써 인도 고전 문화가 더욱 다양해짐

5) **민족적 융합(라지푸트족)**: 에프탈의 인도 침입 때 중앙아시아의 여러 종족도 함께 인도에 들어와 정착/ 그중 하나가 라지푸트족/ 이들은 라자스탄으로 이동하여 그곳 토착민과 융합하여 훗날 북인도의 역사를 좌우

2. 힌두교

1) **성립**: 굽타 왕조는 브라만의 사상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음 -> 이에 브라만교의 전통이 다시 강화되면서 힌두교가 형성, 확산됨 -> 굽타시대에는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불교 및 다양한 민간신앙이 융합된 힌두교가 성립: 힌두교는 창시자는 없고, 체계적인 교리가 없지만 원시신앙에서 차원을 높은 철학까지 다양한 요소를 포괄

2)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신들을 숭배**: 시바(파괴의신, 춤의신: 그의 춤 때문에 우주의 생성과 파괴가 가능), 비슈누(유지), 브라흐마(창조) 등이 주된 대상

3) **굽타시대 왕들**: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비슈누에 비유하면서 힌두교를 보호, 후원

4) **백성들**: 토착적 성격이 강한 힌두교를 쉽게 받아들여 힌두교는 민족 종교로 발전

5) 특징

① 일상생활에서 치러지는 각종 의례를 중시: 의례를 주관하는 브라만의 지위와 영향력이 강화

② 힌두교도는 자신이 속한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더 나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음

③ 힌두교가 확산되면서 카스트제도는 인도 사회에 더욱 정착

6) **마누법전**: 카스트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의례와 관습, 법 등을 기록한 마누법전은 힌두교도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침

업(카르마)과 카스트의 중시
 창조주는.....각자의 업을 정하였도다. 브라만에게는 베다를 가르치고 배우며 제사지내는 일을, 크샤트리아에게는 백서를 보호하고 다스릴 것을, 바이샤에게는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를 것을 명령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드라에게는 앞선 세 신분에 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임무를 명령하셨다. -마누법전-

최고의 존재(신)는 이 모든 것을 보호할 목적으로 왕을 출현시켰다.....왕은 신의 아들로부터 영원한 요소를 취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능가한다..... 어린아이조차도(왕에 대해서는) 그는 인간일 뿐이다라고 불경을 범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위대한 신이기 때문이다. -마누법전-

7) **남부의 힌두교도**

- ① 인도의 남부에 전파된 힌두교는 남부의 토착신앙과 융합되면서 북부와 다른 힌두문화를 발전시킴
- ② 남부의 힌두교도는 엄격한 의식보다는 춤과 노래 등으로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 신에게 바치는 노래와 시를 많이 짓고, 신을 위한 아름다운 사원을 만듦

3. 인도색채가 강한 고전문화가 발전

- 1) **왕과 귀족, 부유한 상인들**: 은 학교와 사원을 세워 학문과 예술을 후원하여 더욱 발전시킴
- 2) **찬드라굽타2세**: 산스크리트 어 희극 작가인 칼리다사를 자신의 궁정시인으로 둘 정도로 예술을 후원, 이러한 후원에 힘입어 칼리다사는 인도의 궁중생활을 세밀하게 묘사한 **샤쿤탈라** 라는 희곡을 지음

3) **철학**: 우파니샤드 철학의 주석서가 저술
산스크리트 문학: 브라만계급의 언어인 산스크리트 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

4) **서사시**:
 인도의 많은 전설과 설화를 담은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등의 서사시가 완성
 마누법전과 함께 힌두교의 중요한 경전역할

- 5) **자연과학**:
- ①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
 - ② 인도인에 의해 확립된 0의 개념은 훗날 아라비아 숫자의 형성에 기여
 - ③ **아리아바타**: 굽타시대의 뛰어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리아바타/ 지구가 하나의 공과 같이 생겨서 자전을 하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주장
 - ④ 영향: 이러한 자연과학지식은 이슬람세계에 전해졌으며 훗날 유럽에까지 전해져 수학과 천문학(자연과학)의 발달에 기여

6) 미술

굽타양식이 발달: 아잔타 석굴사원과 엘로라 석굴사원의 불상 및 조각 등

영향: 이러한 석굴사원양식은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의 미술에도 영향을 미침

특징: 옷 주름의 선을 생략하고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어 인도 고유의 색채를 보여줌

7) 불교

① 힌도교가 민족종교로 발전함에 따라 불교는 쇠퇴(인도의 불교는 8-9세기 경에 쇠퇴): 그러나 대승불교의 교리연구는 계속되어 많은 구법승들이 일종의 불교대학인 날란다 사원에서 수행

② 굽타시대에는 힌두교가 널리신봉되었지만, 왕실의 지원에 힘입어 불교도 발달

③ 여러 왕들의 후원으로 불교 사원이 건립되었으며 대승불교의 다양한 교리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밀교도 등장

6세기 경 굽타왕조가 멸망하자 북인도는 다시 소왕국들로 분열

7세기 경 하르샤가 바르다나 왕조를 세우고 북인도를 평정하였지만 곧 붕괴

이후 북인도에는 여러 소왕국들이 세워져 서로 힘을 겨룸

데칸고원 이남에서는 북인도의 통일제국에 통합되지 않은 여러 왕조들이 세워짐

<팔라바왕조>(4세기~9세기)

인도 남부지역을 지배하며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

일찍부터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누림: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목재, 중국의 비단과 종이 등을 사다가 서아시아와 유럽에 팔아 이득을 남김

이슬람 상인과 인도양 무역의 주도권 다툼을 벌임

<북인도: 델리술탄시대>:(13C~) 300년 동안 북인도 지역에서

는 이슬람계의 5왕조가 교체 13세기 초 델리의 맘루크 왕조가 들어선 후 약 300년 동안 다섯 개의 이슬람 왕조가 연이어 나타남 =델리술탄시대

이슬람세력은 8세기 경 인도북부에 진출: 쿠샨왕조가 멸망한 뒤 7세기 중엽부터 약 600년 동안 여러 소국이 난립, 이러한 분열시기에 이슬람세력이 8세기 초부터 서북인도에 침입

가즈니왕조: 10세기 말 이슬람세력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인도 서북부 지역에 가즈니 왕조 세움

고르왕조

맘루크(노예)왕조: 가즈니 왕조 멸망 후 세워진 구르 왕조의 맘루크가 북인도의 술탄이 되

어 맘루크 왕조를 세움

델리에서는 이슬람문화가 번성: 이슬람 학자와 예술가들이 델리로 들어와 아랍과 페르시아 문학, 의학, 수학 등을 전함 -> 이슬람 문화 + 힌두문화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가 성립

인도를 지배한 이슬람 왕조: 처음에는 힌두교를 탄압 -> 델리 술탄 왕조 시대에 들어와서는 개종을 강요 x, 힌두교들은 인두세인 지즈야만 부담하고 자신의 종교(힌두교)를 믿을 수 있었음, 엄격한 카스트제도에 불만이 있던 일부 힌두교도는 평등주의를 내세운 이슬람교로 개종, 지주야가 과중한 것은 아니었지만 엄격한 카스트제에 불만이 많았던 인도인 중에는 신분평등을 주장하는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많음

<남인도: 촌라왕국>(6세기 무렵에 등장하여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큰 세력을 형성: 9세기 후반~13세기)

영역: 한때 남인도 지역 일대를 차지하고, 스리랑카 일부를 병합할 정도로 강성
우세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수마트라와 말레이도 점령

경제: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등과 교역하며 번영을 누림
면직물을 수출하고,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림
중개무역의 주도권을 두고 팔라바 왕국과 대립하기도 함

문화: 이 과정에서 남인도의 힌두문화가 동남아시아로 전파

<인도의 무굴제국>(16세기 초)

1. 바부르

1) **건국:** 16세기 초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바부르는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을 근거지로 하여 인도북부로 진출 -> 강력한 대포로 무장한 바부르는 북인도를 장악한 후 델리술탄국의 저항을 물리치고 무굴제국을 수립

2) **파니파르 전투:** 바부르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무굴제국을 세움

3) **수도:** 아그라성

2. **아크바르(악바르) 황제:** 바부르의 손자 아크바르 황제 때 빠른속도로 성장, 데칸 고원을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 북인도의 토착세력인 라지푸트족 출신의 왕비를 맞이함

1) **인도북부를 통일하고 중앙집권적인 행정조직을 정비:**

① **중앙:** 중앙의 관료제를 정비

② **지방:** 행정조직 정비: 전국을 주로 나누고 지사를 파견하여 황제의 명령이 지방까지 미치도록 함

2) **농민생활안정책**

공평하고 효과적인 토지개혁을 통해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

3) **종교적 관용정책:** 힌두교 세력의 지지를 얻어냄,

① 힌두교도를 이슬람교도와 똑같이 관료로 임명

②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부과하는 인두세(지즈야)를 폐지(면제)

④ 혼인동맹을 통하여 토착 힌두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듦

-> 중앙집권화정책과 관용정책으로 말미암아 힌두교도에게도 황제로 인정받음 -> 이후 1세기에 걸쳐 무굴제국의 번영이 이어짐

⑤ 기독교에도 관용

3. 아우랑제브황제(17세기 후반)

인도 남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굴제국 최대 판도를 이룸/ 잦은 전쟁: 지나친 정복전쟁으로 재정이 고갈

이슬람 제일주의(우선정책):

이슬람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지즈야를 다시 부과, 힌두 사원 파괴하는 등 이교도 탄압을 강화 -> 이러한 탄압으로 편자브지방의 시크교도, 데칸고원의 마라타동맹(힌두교 왕국인 마라타 왕국의 재상 페슈와를 중심으로 결성한 연맹체, 무굴제국에 저항하여 인도 중부에서 북부까지 지배하였으나 3차례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1818 해체) 등의 반란 -> 이때부터 각지의 토착세력들이 독자적인 지배권을 형성해 나감 ->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의 동서 해안에 침투하여 세력을 확장해 나감, 무굴제국의 약화를 더욱 촉진시킴

4. 무굴 제국의 경제, 문화

1) 농업

페르시아 지역에서 도입된 관개농법으로 농업생산력이 증대

2) 상공업

도시상공업자가 증가하여 식락유통도 활발해짐

3) 화폐경제 활성화

4) **도시의 성장:** 해안지대 무역항이 발달하고, 내륙 곳곳에 시장과 도시가 들어섬

상공업의 발달은 도시의 성장을 가져와 델리, 아그라 등은 17세기 중반 무렵 인구가 2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

5) 대외교역

① 특히 대외교역이 활발하여 인도양 무역을 통해 무굴제국의 생산품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페르시아, 이집트의 물품도 거래 -> 이를 통해 많은 부를 쌓음

② 15세기 말 이후: 유럽인이 향신료를 찾아 인도양 무역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 처음에는 포르투갈인이 17세기 이후에는 네덜란드, 영, 프가 인도의 서남부 해안에 무역기지를 건설하고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상품을 수집하여 유럽에 판매

6) 수출품: 면직물, 견직물, 향신료가 대표적

면직물(직물업): 그중에서도 면직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멀리 유럽에까지 팔려나감
전통적으로 직물업이 발전하였는데, 무굴제국의 면직물 수출품으로도 인기가 많아서 멀리 유럽에까지 팔려나감

5. 힌두, 이슬람 문화: 인도. 이슬람문화: 전통적인 힌두 문화와 외래의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인도. 이슬람 문화가 발전

1) 종교(시크교):

나나크에 의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교리의 장점이 융합된 시크교가 성립-> 편자브지방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이어짐

우상숭배와 일신론, 카스트제도에 반대를 주장(신분차별에 반대, 인간평등 주장)

순수한 종교개혁운동으로 시작 -> 아우랑제브황제의 탄압 이후 군대를 결성하여 무굴제국에 대항

2) 회화(무굴회화): 전통적인 인도양식과 페르시아 풍의 세밀화가 조화를 이룬 무굴회화가 발달하여 인물이나 궁정 생활, 풍경 등을 사실적이고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묘사

3) 타지마할:

샤자한이 타지마할을 보고 난 후의 감흥을 노래한 것
어느 날 흘러내린 눈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맑고 투명하게 빛
나라라
-타고르-

힌두문화(인도) + 이슬람문화/ 샤자한이 왕비(뭉타즈 마할)를 기념하여 세운 묘당/

인도 전통 건축 소재인 대리석(순백의 대리석무덤)과 이슬람의 특징인 (돔 양식, 탑, 아치)을 잘 조합한 뛰어난 건축물/ 아라베스크(이슬람)와 연꽃무늬, 만자무늬(인도)

4) 우르두어:

① 원래 튀르크계 이슬람지배자들이 인도용병을 부리기 위해 만든 언어였으나, 민족과 종교 구성이 한층 다양해진 무굴제국 시대에는 일상 언어로 널리 사용: 무굴제국의 공식언어는 페르시아어가 공식문서와 외교문서에 사용/ 그 밖의 경우에는 우르드어가 사용

② 힌두문화 + 이슬람문화(델리술탄왕조 이후에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언어, 힌두어를 기본으로 하고, 튀르크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등이 혼합/ 힌두어와 아랍어가 혼합/

③ 현재 파키스탄 공용어/

<인도의 민족운동>

1. 영국의 침략

무굴제국은 아우랑제부 황제 사후, 종교적 분쟁과 지방 세력의 등장으로 분열

-> 이 분열을 틈타 영국, 프랑스 등은 인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

영국: 17세기 초 동인도 회사를 설립 -> 인도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

프랑스: 17세기 말 동인도 회사를 설립 -> 인도에서의 영향력을 넓힘

=> 양국은 대립

플라시 전투

① 벵골을 다스리던 인도 총독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영국에 맞서 싸웠으나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에 패배(1757) -> 그 결과 인도는 벵골 지방의 통치권과 조세 징수권을 영국에게 빼앗김 -> 영국은 인도 전역을 장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② 플라시전투 이후 동인도회사는 본격적으로 인도를 식민지 경제 체제로 재편: 특히 벵골

지방에서 생산되는 목화를 무한정 영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국의 산업혁명에 큰 도움이 됨

영국

- ① 인도의 민족적, 지역적, 종교적 갈등을 이용해 인도 내 영향력을 점차 확대
- ② 영국산 값싼 면제품을 인도에 대량으로 수출 -> 인도의 수공업업을 몰락시킴, 수공업자는 일자리를 잃음, 면직물 공업은 파괴됨/ 면화(목화), 아편, 차 등의 지배 강요 -> 그 결과 인도는 영국의 면화공급지이자 면직물 시장으로 전락

영국	값싸게사들인 면화로 면직물을 만들어 인도에 되팔음 <----- 인도 -----> 기계로 대량 생산된 영국의 값싼 면직물이 인도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인도의 면직물산업은 급격히 쇠퇴 수공업자도 일자리를 잃음	인도총독 “식물공들의 뼈가 인도의 들판을 뒤덮고 있다”
----	--	--------------------------------------

2. 세포이 항쟁(1857)

남부의 마이소르 왕국 중부의 마라타 동맹과 북부의 시크교도들이 반영 전쟁을 벌였으나 모두 실패

(1) 배경

1) 세포이들의 불만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포이를 고용
 동인도 회사의 세포이들은 영국의 인도 장악에 기여, 좋은 대우 받음
 인종차별(영국의 인도인에 대한 압박), 종교적 갈등 등으로 불만이 쌓여감 : 특히, 대부분 이 힌도교도와 이슬람교도 였던 세포이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탄약 주머니에 소와 돼지의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봉기(세포이 항쟁, 1857)

2) 원료공급지, 상품시장

영국의 식민 정책이 시행되면서 인도는 영국의 원료공급지, 상품시장이 됨

3) 과도한 토지세

과도한 토지세로 인해 인도인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짐

-> 이러한 침략과 수탈에 대한 불만은 결국 세포이 항쟁으로 폭발

(2) 과정:

초기에는 세포이들이 중심 -> 점차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발전
 세포이들은 한때 수도인 델리를 점령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영국군에 의해 진압됨

(3) **의의:** 세포이 항쟁은 인도 최초의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인도인의 민족의식을 일깨움

(4) 결과

- ① 영국은 세포이 항쟁을 진압한 후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를 간접 지배하던 방식 -> 직접지배로 통치방식을 바꿈-> 이후 인도는 영국 왕(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는 인도제국이 되면서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가 됨**/ 이를 위해 무굴 제국의 황제를 폐위
- ② 동인도회사를 해산
- ③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

인도통치개선법

제 1조: 지금까지 동인도 회사가 점유하거나 통치했던 영토와 권력을 영국 여왕 폐하가 대신한다

제 3조: 여왕 폐하의 국무 위원 중 한 사람은 동인도 회사가 가졌던 권력과 의무를 갖고 실행한다.

제 39조: 동인도 회사의 토지, 부동산, 금전, 저당품, 상품, 재산, 그 밖의 부동산과 동산은..... 폐하에게 주어진다.

3. 인도 국민 회의

(1) 상황

- 1) 영국이 식민 통치를 강화하자(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 인도의 사회적, 종교적 분열과 복잡한 민족 구성을 이용하여 경제적 진출을 강화
- 2) 이러한 가운데 영국 등 유럽에서 서구 문물을 접하고, 서양식 근대교육을 받은 인도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민족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 3) 면직물 공업을 중심으로 자본가도 성장
-> 이들은 인도 사회를 개혁하고,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 운동을 추진하는 주체로 등장

(2)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 1) 누가: 서양근대사상의 영향을 받은 힌두교 지도자들 (브라만의 모임)-
- 2) 힌두교의 순수한 교리로 돌아가자는 종교운동에서 출발 -> 나중에는 인도의 지식인들은 **브라흐마 사(사티)마(우상숭배)지(지아비)**를 조직하여 사회적 개혁 운동을 실시

힌두교의 우상숭배와 일부다처제, 사티(남편 사후 아내를 함께 태워 죽이던 풍습) 등 악습을 폐지할 것을 주장

영국의 인도인 차별 정책에 반대하면서 인도인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

(3) 인도국민회의 결성 배경

이 과정에서 인도인의 민족의식이 높아지자(새로운 근대의식을 가진 민족주의자들이 늘어나자), 영국은 인도인들을 회유, 포섭하기 위해 인도 국민 회의의 조직을 지원, 인도인들이 정치조직을 만들도록 지원 -> 그 결과 인도국민회의가 결성(1885)

(4) 인도국민회의 입장변화

- 1) 인도국민회의는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 통치에 순응, 협조하면서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

기 위한 활동에 주력 -> 그러나 1905년 영국이 벵골 분할령(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을 발표하자, 인도 국민 회의는 입장을 바꿔 반영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

인도국민회의의 목적
-인도 제국 각지에 있어 조국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열의에 짝찬 일꾼들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는 것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여러 편견을 근절하고, 친애하는 리폰 경의 통치 기간에 민족적 통일 의식을 반전, 강화하는 것.... 현재의 대표자들은 영국 통치에 대해 호의를 갖는 사람으로 선정되었음
콜카타 대회 의장의 연설
-나는 스와데시가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인들의 희생을 대가로 외국인의 봉급을 줌으로써 인도의 빈궁화를 초래한 채 인도에 영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벵골분할령
1905 인도 총독은 벵골주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 한 사람의 장관이 다스리기에 힘들다는 명분으로 동벵골(이슬람교도)과 서벵골(힌두교도)로 나누어 통치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인도인들은 벵골 분할령을 민족 분열을 피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여김

2) 티라크를 중심으로 한 인도 국민 회의 급진파: 콜카타 대회를 열어 **영국 상품 배척**, **스와라지(자치)**, **스와데시(국산품 애용)**, **국민 교육 실시** 등의 4대 강령을 채택

인도 국민 회의 지도자 티라크의 연설(1906)
우리는 세금을 징수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영국 정부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인도 국경 밖에서 인도인의 피와 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돕지 않을 것이다.

콜카타 대회 의장 나오로지의 연설문(1906)
벵골 분할에 벵골 인은 아주 큰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인의 잔인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언젠가는 바로잡힐 것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와데시는 경제적 혼란 상태에 있는 인도에서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봉급과 연금 등으로 매년 2억 루피 정도를 제공함으로써 인도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데, 그러한 인도에 영국의 경제법을 적용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모욕을 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 이에 영국은 전인도 이슬람교도 연맹을 지원하여 민족 운동을 분열시키고자 함 -> 그러나 전인도 이슬람교도 연맹도 인도 국민 회의와 함께 반영 운동에 나섬 ->

4) 결과: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취소, 인도인들에게 명목상의 자치를 허용(1911)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민족주의 운동

인도는 자치권을 약속한 영국을 도와 제1차 세계 대전에 협력하였으나 영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음: 인도통치개선법을 개정하여 극히 일부의 인도인(2%)에게 선거권을 주는 대신, 불

릿법(치안유지법: 영국이 인도의 민족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영국에 저항한 인도인을 재판 없이 투옥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제정하여 인도의 민족운동을 억압, 탄압

간디	네루
-롤릿법의 폐지와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며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맞섬(사타그라하 운동 1919 선언): 비폭력, 불복종을 내건 이 운동을 통해 이제까지 <u>종교와 카스트, 인종</u> 으로 분열되어 있던 인도사회는 하나로 단결하여 영국의 지배에 저항	-간디의 뒤를 이은 네루는 이러한 투쟁은 소극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다 급진적인 민족운동을 전개
-공직거부, 국산품 애용, 납세 거부 등을 외친 간디의 운동에 많은 인도인이 동참	-자치권을 요구한 간디와 달리 네루는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
-영국의 소금세 폐지를 요구하는 소금 행진을 이끌기도 함: 간디는 3주 동안의 행진 끝에 바닷가에 도착하여 소금을 만듦. 이것은 인도의 소금 제조와 판매를 독점하려는 영국의 식민통치에 맞선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하나	-인도 독립 동맹을 결성(1928)하여 무력으로 영국 식민지배에 저항을 계속: 영국과 빈번히 충돌
	- 1929 인도국민회의 의장으로 선임
	- 1930 1월 독립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거행

-> 영국은 결국 '신인도통치법' 을 제정: 인도의 각주에 대해 (외교와 군사를 제외하고) 자치권을 인정(1935)/ 그러나 외교와 군사권은 여전히 영국의 인도 총독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완전 독립을 목표로 한 반영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됨